

“광주·전남 통합하면 비수도권 최대 규모 경제권 형성”

광주경총 “부울경, 대구·경북 메가시티 등과 대등한 경쟁력”
AI·모빌리티·에너지 결합 첨단 산업벨트 투자·일자리 증대
국책사업·공공기관 유치 유리… ‘1시간 생활권’ 물류비 절감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성사되면 초광역 단일 경제권 형성을 통해 비수도권 메가시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인구·재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15일 보도자료

를 내고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슈퍼 광역경제권’이 형성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메가시티와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수도권 최대급 경제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나의 광역 지자체로 묶일 경우 대형 국책

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국가 재정사업 유치 과정에서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 지자체 단위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일 주체’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첨단 제조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반도체·우주항공·해양관광 자원이 결합된 초광역 첨단 산업벨트 구상이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다. 산업을 광역 단위로 배치하는 ‘패키지형 투자유치 전략’을 통해 대기업 생산라인과 미래차, 첨단 제조 기반을 유치·배치할 수 있어 지역 산업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광주경총은 또 인프라·교통망과 생활 경제 측면에서도 통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권·전남 동부권·서부권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1시간 단일 생활권’을 구축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산업단지·항만·공항·에너지 인프라 간 연계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생산성 개선과 정부 여건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서비스업 매출 증가 등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게 광주경총의 전망이다.
광주경총은 최근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행정 통합의 효과로 ‘소득 증대’, ‘복지 혜택 확대’, ‘일자리 기회 증가’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을 경

제적 기회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재정 자율성과 권한 이양이 강화되면 지역이 설계한 맞춤형 복지·고용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정부의 ‘5극 3축’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이 하나의 성장축으로 자리 잡으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호남권을 독자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 이전을 넘어 자산 형성과 지역자본 축적까지 뒷받침할 경우 장기적인 부의 축적과 경제 자립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설 명절 맞아 중소기업 특별자금 1조원 지원

신규자금 연 1.1%P 금리우대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2026년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설 명절 전후로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물품대금 결제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특히 최근 경기 침체 및 비용 상승 등 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금융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자금 5000억원, 만기연장 5000억원 등 1조원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 이내다.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1%포인트(p)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우성이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

로도 지역 산업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은 총재 “환율 고려해 금리 동결…환율 잡으려 인상 안해”

“국내 달러 풍부, 안 팔아서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제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당연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펀더멘털 외에 수입 요인도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초 환율 상승분과 관련해 “4분의 3 정도

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는 일축했다.
그는 “6개월 전만 해도 금리를 안 내려서 실기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환율이 오른다고 금리를 안 올려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서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p)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환율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에도 거듭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국이기에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며 “외화 부채가 많아서 그걸 못 갚으면 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면 과거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풍부하다”며 “환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고 빌려만 주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는 일부 시각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M2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2~3배 돼서 유동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라고 일축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유튜브, 부모가 자녀 ‘쇼츠 차단’ 기능 도입

계정 쇼츠 피드 ‘제로 설정’ 도입

유튜브가 부모가 자녀의 쇼츠 피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호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유튜브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 기능을 업데이트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부모는 감독 대상 계정으로 15분 단위로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로 유튜브는 쇼츠 피드 타이머를 ‘제로’로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부모가 쇼츠 피드 타이머를 제로로 설정하면 자녀는 유튜브 내 쇼츠 피드를 아예 스크롤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의 취침이나 휴식 시간 알림을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데이트로 청소년이 연령에 적합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미국 로스앤젤레

스 캘리포니아대(UCLA)가 협력해 개발했고, 미국 심리학회, 보스턴 아동병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쳤다.
가이드라인이 청소년 시청자에게 적합한 고품질 콘텐츠와 저품질 콘텐츠의 기준을 제시하면 유튜브가 고품질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더 자주 노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품질 콘텐츠에는 탐구 정신과 영감을 높이는 콘텐츠, 관심사와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콘텐츠 등이 해당한다.
저품질 콘텐츠의 경우 유튜브는 식이장애와 같이 모방 위험이 큰 행동이 포함된 영상은 삭제해 주, 해당 행동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는 연령 제한이 있는 콘텐츠로 분류했다.
이 밖에 계정 설정 기능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업데이트 후 부모는 자녀용 신규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모바일 앱에서 자녀용 계정으로 전환해 자녀가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감독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기업부 장관이 15일 광주시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중기장관 “지역 중심 성장 생태계 강화”

광주전남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참석

한성숙 중소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지역 중심 성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접근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광주전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장관은 “올해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찾아 상인회·청년상인들 만났고 여러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했다. <사진>
중기부는 한 장관이 이날 구매한 물품을 지역 복지시설인 희망의 집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키즈 고객 잡기’ 멤버십 혜택 강화

광주신세계가 매년 성장하는 키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키즈 멤버십’이 가족 단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15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데이터 서비스업체 ‘피치북’은 지난해 국내 키즈 산업 시장이 6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2012년(31조원) 대비 두 배 넘게 성장할 수 준이다.
광주신세계는 이같은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해 하반기 키즈 멤버십을 도입한 데 이어 혜택을 맞아 더 큰 혜택을 더한 서비스를 선보여 키즈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키즈 멤버십은 지난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고객 중 신세계백화점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가입 축하 쿠폰 4종을 증정한다. 아동 브랜드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권, 건강식품 10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권, F&B(식품

료) 1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권, 푸드마켓 3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권이 있다.사용기간은 회원가입일로부터 15일이며, 증정은 가입시 1회만 한정 증정된다.
월간 정기할인쿠폰 6종도 받아볼 수 있다. 아동 브랜드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권 등 6종 쿠폰을 가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1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797.55 (+74.45)
↑ 코스닥	951.16 (+8.98)
↑ 금리 (국고채 3년)	3.090 (+0.094)
↓ 환율 (US D) <오후 4시 40분 기준>	1471.35 (-6.15)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

지난해 12월 코픽스 0.08%P ↑

신규취급액 기준 연 2.89%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올랐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연 2.81%)보다 0.08%포인트(p) 높은 2.89%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2.83%에서 2.84%로 0.01%p 높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시중 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15~5.55%에서 4.23~5.63%로 0.08%p 높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91~5.31%에서 3.99~5.39%로 인상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3.99~5.19%에서 4.07~5.27%로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핸드메이드 제품 ‘마이마스터즈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공예 디자인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9일까지 1층 이벤트홀에서 ‘마이마스터즈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마이마스터즈는 디자인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이번 팝업 행사에서는 도예가 ‘마효숙 작가’의 도자보석을 활용한 액세서리 상품, 화가 겸 디자이너인 ‘주완식 작가’의 핸드백 상품, ‘신재범 작가’의 염색 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